

2~3점 앞서도 조마조마 ‘불펜의 난’

위크 & 베이스볼

KIA 마무리 앤서니 8회부터 등판 악수
구위 회복 중 송은범 셋업맨 컴백 희망

두산 아직도 필승조 무꾸러 땀질 운영
기대주 김강률 제구력 안정감 희소식

올 시즌 KIA와 두산은 불펜 불안으로 어려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KIA는 최근 9연승을 달리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마무리투수 앤서니 르루의 들쭉날쭉한 피칭은 여전히 팀의 가장 큰 불안요소다. 두산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시즌 개막 후 3개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필승조가 꾸려지지 않았다. 불펜진의 방어율은 4점대 후반이고, 세이브와 불펜세이브가 앞서거나 뒤처거나 하고 있다. 2~3점 앞선 상황에서도 역전패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처지다. 지난해 35세이브를 올린 스캇 프루터가 사부지계 그리울 정도다.

●불펜 불안, 문제는 8회!

불펜 불안은 단순히 마무리투수에서만 비롯되는 문제는 아니다. KIA 선동열 감독과 두산 김진욱 감독 모두 8회를 버텨줄 투수가 없다는 사실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선 감독은 “8회를 확실하게 막아줄 투수가 없어 앤서니를 8회에 올리고 있다. 선발투수를 해왔던 선수여서, 아직까지 불펜에서 많은 공을 던지고 마운드에 오른다. 여기에 투구 이닝도 길어지면서 구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앤서니는 11~13일 광주구장에서 펼쳐진 NC와

! KIA·두산 불안한 ‘뒷문’ 대책은?

의 3연전에 내리 등판해 3이닝만을 소화하고도 모두 61개의 공을 던졌다. 불펜 투구까지 고려한다면 3일간 최소 100개의 공을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두산도 8회가 고민거리다. 그나마 믿었던 불펜요원 중 정재훈은 구위 저하, 오현택은 투구패턴 노출로 난조에 빠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김 감독은 마무리 홍상삼을 8회에 올리는 강수를 두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홍상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탓에 22일 잠실 한화전과 26일 광주 KIA전에서 두산은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연장 승부를 벌여야만 했다. 26일은 연장 12회까지 무려 5시간15분(올 시즌 최장시간 경기)에 이르는 혈전이었지만, 무승부로 돌아가면서 소득 없는 소모전이 되고 말았다.

●셋업맨 부재, 대안은 있는가?

KIA와 두산 모두 마무리투수들이 부담을 덜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선 결국 8회를 버텨줄 셋업맨을 찾아야 한다. 선동열 감독은 송은범의 구위 회복에 기대를 나타냈다. 송은범은 투구 밸런스를 잃어 올 시즌 23경기에서 방어율 6.85의 부진에 빠졌다. 선 감독은 송은범의 구위 회복을 위해 두산과의 주중 3연전 동안 송은범을 전력에서 제외시킨 채 훈련에만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불펜 운영을 위한 교육지책이다. 선 감독은 “송은범이 본래 구위를 찾았다면, 앤서니가 9회 1이닝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산은 기대주 김강률을 필승조로 올릴



KIA와 두산은 마무리 앤서니(왼쪽 사진)와 홍상삼의 앞을 받칠 연결고리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양 팀의 셋업맨 후보 1순위로 손꼽히는 송은범(KIA)과 김강률(두산)이 꼽힌다.



계획이다. 김강률은 27일까지 올 시즌 13경기에서 15.2이닝을 던져 방어율 0.57을 기록 중이다. 체구가 불안하지만, 작구 구위만큼은 불펜 투수 중 단연 최고다. 김 감독은 “(김)강률이의 제구력이 불안해 접전 상황에선 올리지 못했다. 점차

타이트한 상황에 올리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다. 홍상삼의 앞에 올리려고 한다. 불펜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광주 | 정지숙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eek15

류현진 ‘누가 오래 버티나’ 싸움

30일 필라델피아 클리프 리와 ‘이닝이터’ 대결



‘이닝이터’ 간의 ‘빅뱅’이다. 과연 누가 더 오래 버틸까.

LA 다저스 류현진(26·사진 위)은 30일 오전 11시10분(한국시간) 다저스 타디움에서 열리는 필라델피아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승에 재도전한다. 필라델피아는 내셔널리그(NL) 동부지구 소속으로, 2009년에는 박찬호가 몸을 담기도 했다. 2007~2011년 5시즌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등 강팀으로 군림했지만, 올 시즌에는 지구 3위로 처져 있다.

상대 선발은 2008년 클리블랜드 소속으로 22승3패, 방어율 2.54를 기록하며 아메리칸리그(AL) 사이영상을 거머쥔 클리프 리다. 올 시즌 9승2패, 방어율 2.51을 기록 중인 리는 메이저리그(ML)의 대표적 이닝이터다.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2007년을 제외하면, 2005~2012년 매 시즌 꾸준히 200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올 시즌에도 16경기 선발 등판해 벌써 118.1이닝을 던지고 있다. 이는 다저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121.1이닝)에 이어 27일까지 ML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류현진 역시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이닝이터였고, 현재 팀 내에서 커쇼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이닝(98)을 던지고 있다. 류현진과 리는 이닝이터라는 점 이외에도, 좌완에 빼어난 제구력과 체인지업을 자랑하는 투수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다저스와 필라델피아 모두 타력은 강한 편이 아니라서, 30일 경기는 양 팀 선발간의 맞대결에 초점이 모아진다. 과연 누가 더 오랫동안 마운드를 지킬지 관심이사다.

한편 다저스는 27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선발 커쇼의 8이닝 2실점 후투에 힘입어 라이벌 샌프란시스코와를 4-2로 누르고 시즌 첫 5연승을 달렸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잔인한 6월’ 헛도는 추의 방망이

이틀 연속 무안타...타율 2할6푼대로 추락

6월 들어 슬럼프를 겪고 있는 추신수(31·신시내티)의 시즌 타율이 2할6푼대까지 떨어졌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폴리스미스에서 열린 오를랜드와의 인터리그 원정경기에서 1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이틀 연속 무안타의 침묵 속에 타율도 0.271에서 0.269로 내려갔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오를랜드 우완 선발 AJ 그리핀에게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 출루했으나, 이후 유격수 플라이(3회)-우익수 플라이(6회)-2루수 망בל(8회)로 공공 뒤편했다. 신시내티도 그리핀에게 완봉승(9이닝 2안타 2볼넷 7탈삼진 무실점)을 허용하며 0-5로 완패했다. 4월 한 달 동안 타율 0.337에 4홈런 11타점을 올리며 기세 좋게 시즌을 시작한 추신수는 5월 타율 0.240, 6홈런, 9타점으로 주춤한 데 이어 6월에는 이날까지 타율 0.221, 1홈런, 5타점으로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y@donga.com 트위터@parkyoon

이호준 홈런 9개 중 5개는 ‘집밥의 힘’

주말 아내가 마산으로 내려와 음식 내조...타점 1위 원동력



NC 이호준(37)은 야구장에 도착하면 홀로 훈련을 시작한 뒤 제일 먼저 덕아웃으로 돌아간다. 5월부터 그의 체력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NC 코칭스태프의 배려 덕분이다. NC 김경문 감독은 “신생팀에서 타점 1위가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릎이 안 좋아 지명 타자로 방망이만 치라고 했는데, 집중력이 나오더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호준은 26일까지 NC의 61경기에서 모두 출전하며 타율 0.289에 9홈런 54타점을 뽑았다. 타점은 전체 1위로 프리에이전트(FA) 이적 첫해부터 제 몫을 다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27일 사직 롯데전을 앞두고 그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좀 지치는 것 같다”며 힘들어 했다. 이런 이호준에게 28일부터 천군만마가 나타난다. 바로 아내 홍연실(35)씨다.

이호준은 SK에서 NC로 이적한 뒤 가족을 인천에 남겨둔 채 홀로 마산에 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아침도 못 먹고, 혼자 눈뜨는 아침이 너무 싫다”고 했다. 그래서 주말이면 아내가 마산에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홈런 5개는 집에서 밥을 얻어먹기 시작하면서 나왔다. 이에 흥씨는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9월부터는 아예 마산에서 내조에 집중하기로 했다. NC는 28일부터 두산과 홈 3연전에 돌입하는데, 매마침 흥씨가 내려올 예정이어서 이호준의 타격감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직 |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트위터 @matsr21

‘맞아야 사는 남자’ 추신수, 맞아도 너무 맞아

ML 인사이트 | 몸에 맞는 볼 ‘死구’

ML 1위 추신수, 슬럼프에도 출루율 유지
전설의 사구왕? 287번 맞은 휴이 제닝스

死구, 부상·실명 위험...최악엔 사망까지
다저스-애리조나 난투극도 사구로 촉발

‘몸에 맞는 볼’은 투수가 던진 공에 타자가 맞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 ‘데드볼’이라는 잘못된 영어로 쓰이기도 했다. 타자의 몸은 물론, 방망이를 제외한 타자의 장비에 맞는 것도 포함된다.

양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물러나와 난투극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은 몸에 맞는 볼과 연관돼 있다. 류현진이 속해 있는 LA 다저스의 경우 올 시즌 2차례 벤치 클리어링을 펼쳤는데, 모두 잭 그레인키가 선발 등판한 경기였다. 4월 12일(한국시간) 펠코파크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그레인키가 던진 공에 왼쪽 어깨를 강타당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중심타자 카를로스 쿠엔틴이 마운드로 달려나가 마치 들소들이 정면충돌하는 것처럼 몸싸움을 벌였다. 왼쪽 쇄골 골절상을 입은 그레인키는 34일 후애나 복귀해 다저스 전력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그로부터 정확히 2개월 뒤인 6월 12일 다저스 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다저스의 경기에선 무려 5개의 사구가 오간 끝에 6명이 퇴장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6회말 애리조나 투수 이언 케네디가 던진 공이 다저스의 최

망 야시엘 푸이그의 코를 스치는 일이 발생하자, 7회초 곧바로 그레인키가 상대 포수 미겔 몬테로 등의 맞았다. 사단은 7회말 벌어졌다. 2-2 동점 상황에서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1사 후 그레인키를 타석에 내보냈다. 7회초까지 98개의 공을 던졌고, 이전 이닝에서 빈볼 시비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그레인키를 대타로 교체하지 않은 매팅리 감독의 판단 미스였다. 먹잇감을 포착한 케네디의 손을 떠난 공은 그레인키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렸다. 순간 양 팀 선수뿐 아니라 코칭스태프도 몸싸움에 가세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27일 현재 추신수(신시내티 레즈)는 무려 20개의 사구를 기록해 메이저리그(ML) 전체 1위에 올라있다. 2위 스탈링 마르테(피츠버그 파이어리츠)보다 6개나 많다. 최근 슬럼프인 추신수의 타율은 0.269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출루율은 0.419로 미겔 카브레라(디트로이트 타이거스·0.460), 조이 보토(신시내티·0.437)에 이어 ML 전체 3위를 달리고 있다. 불넷(54개)과 사구(20개)를 더한 4사구가 안타(76개)보다 2개밖에 적지 않아 4할대의 출루율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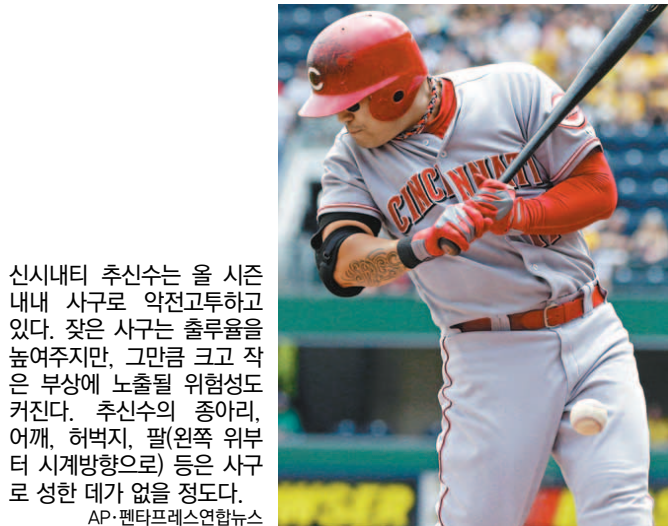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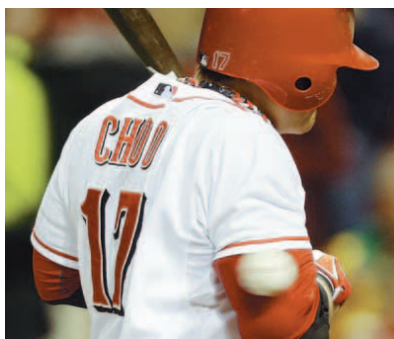
사구가 성립하려면 타자가 피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극히 드문 일이지만, 몸에 볼을 맞고도 1루로 나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1968년 6월 1일 40연속이닝 무실점 행진을 펼치던 다저스 돈 드라이스데일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딕 다이츠를 맞아 밀어내기 점수를 쏜 땀했다. 그러나 해리 웬델스데트 주심은 타자에게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몸에 맞는 볼 대신 그냥 볼을 선언했다. 계

속 타격을 한 다이츠는 좌익수 플라이로 잡혔고, 실점 위기를 넘긴 드라이스데일은 당시 최고인 58.2연속이닝 무실점 기록을 수립할 수 있었다.

사구를 가장 많이 얻은 선수는 휴이 제닝스로 1891년부터 1903년까지 무려 287차례나 맞았다. 2007년 은퇴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크레이그 비지오는 285번 공에 맞아 2개차로 타이 기록 수립에 실패했다. 단일시즌 기록도 역시 제닝스가 보유하고 있는데, 1896년 51차례나 맞았다.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는 치명적 흉기나 다름없다. 1920년 8월 17일 칼 메이스(뉴욕 양키스)가 던진 공에 머리를 맞은 레이 채프먼(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은 바로 다음 날 사망했다. 1967년 8월 19일 잭 해밀턴(캘리포니아 에인절스)의 강속구에 왼쪽 눈을 맞은 토니 코니질리아노(보스턴 레드삭스)는 거의 실명할 뻔했다. 1년 넘게 공백기를 가진 코니질리아노는 그라운드로 복귀했지만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했다. 1995년 9월 29일 커비 퍼짓(미네소타 트윈스)은 테니스 마르티네스(인디언스)가 던진 공에 얼굴을 맞아 턱뼈와 이가 두 개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퍼짓은 재기를 노렸지만 후유증 탓에 끝내 그라운드로 돌아오지 못했다. 2006년 4월 2번째 대학팀단 경기에서 발생한 사구는 범정소속으로까지 번졌다. 캘리포니아주범원은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공을 던졌다고 해도 야구라는 종목이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신시내티 추신수는 올 시즌 내내 사구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맞은 사구는 출루율을 높여주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부상에 노출될 위험성도 커진다. 추신수의 종아리, 어깨, 허벅지, 팔(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등은 사구로 성한 데가 없을 정도다. AP·펜타프레스연합뉴스